



'회기동 단편선' 박종윤 동문이 그가 이사장으로 있는 '홍우주 사회협동조합' 건물 앞에 서있다.

(사진=이지수 기자)

‘단편선’, 프로듀서로서 인생 제2막 “내 음악으로 사람들이 살아갈 힘 얻길”

이지수 기자 ssu1404@khu.ac.kr

‘회기동 단편선’은 박종윤(미디어학 2004) 동문이 재학 당시 직접 지은 활동명이다. 현재는 회기동을 벗어나 주로 홍대에서 활동하고 있기에 ‘단편선’으로 불린다. 지난 2013년부터 5년간 활동했던 소속 그룹 ‘단편선과 선원들’은 2015년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록 음반상을 수상했다. 이후 프로듀서로 활동하며 그가 편곡한 3곡은 2022년 한국대중음악상에서 각각 최우수 록 음반·노래 부문, 최우수 포크 음반 부문에서 성과를 냈다. 연극 음악감독, 독립음악 프로덕션 운영, 홍우주사회협동조합 이사장, 축제 기획 등 음악과 매개된 모든 일을 하는 사람 ‘회기동 단편선’을 만나봤다.

음악도 결국 ‘이야기’ 사람들에게 살아갈 힘 주고 싶어

박종윤 동문에게 처음 음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묻자 PC 보급이 된 1990년대를 언급했다. 개인용 컴퓨터(PC)가 집집마다 생겼던 시기인 1990년대 후반, 정확하게는 1999년에 중학생이었던 박 동문은 작곡할 수 있는 midi 프로그램을 접하며 음악을 시작하게 됐다. “오락실에 자주 다녔는데, 그때 음악에 맞춰서 건반 치는 리듬 액션 게임을 많이 했어요. 거기 나오는 음악들이 거의 다 일렉트로닉이거든요. 웬지 전자

음악은 나도 좀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하게 됐어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만, 직접 만드는 사람은 드물다. 박 동문은 어릴 때부터 이야기를 만드는 일에 흥미가 있었고, 나아가 음악도 만들게 됐다. “어릴 때부터 이야기 만드는 걸 좋아했어요. 이를테면 재미로 소설을 써본다든지, 만화도 오래 그렸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계속 그랬으니까, 음악도 자연스럽게 만들어 보자고 생각했고 지금도 계속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다 이야기 만드는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박 동문은 언론정보학부에 2004년에 입학해 2012년 조금 늦은 나이로 졸업했다. 졸업하기까지 시간이 걸린 이유에 대해 그는 ‘회기동 단편선’으로 보내는 시간 동안 음악인으로서 주관이 뚜렷해졌기 때문이라고 회상했다. “음악을 하면서 사람들이 힘을 얻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힘인지까지 내가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살아갈 힘이겠죠. 그리고 한 명의 시민으로서나 자신의 어떤 정체성이든 계속 밀고 나갈 수 있는 힘. 사람들이 이 공연을 보고 다 같이 뭔가를 외치고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러한 생각 끝에 그는 철거촌에서 철거민과 같이 음악을 만드는 활동, 빈민이나 노동자와 함께 연주하

는 활동을 하며 마음속에 있던 사회적 불만을 음악을 매개로 풀어내기 시작했다. 2010년에는 반드시 졸업하겠다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 또한 531일여간 진행됐던 ‘두리반 투쟁’을 하느라 늦춰졌다. 홍대 동교동 삼거리 인근에 있던 국숫집 ‘두리반’이 전철 공사로 강제 철거될 위기에 처하자, 홍대 뮤지션들은 연대의 의미로 두리반 앞에서 매일 공연을 진행했다. 이때 박 동문도 힘을 보탤던 것이다.

몸하고 몸들이 맞닿아 생긴 열기 움짱달짝 못 할 정도로 관객과 가까운 공연 좋아했다

박 동문은 그동안 써온 곡들을 모아 ‘회기동 단편선’으로 첫 데뷔 앨범을 발표했다. 이후 ‘단편선과 선원들’이라는 밴드를 만들었다. “아주 작은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들이었어요. 무대도 없고 관객과 나의 거리가 움짱달짝 못 할 정도로 가까운 거리요. 그렇게 사람 많은 상태에서 공연했던 기억들이 저한테는 가장 좋았던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역동적이고 폭발적이라는 평을 받았던 밴드 공연에 대해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몸을 혹사하는 공연이 저한테 되게 중요했어요. 어쿠스틱은 소리를 무한히 키울 수가 없어요. 그걸 가지고 얼마나 더 빠르고 강력한 음악을 만들 수 있는지 계속

실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소리를 세게 내려고 액션도 엄청나게 크게 했어요. 관객들도 그걸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목숨 걸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관객들이랑 몸하고 몸들이 맞닿아 생긴 열기 같은 거라고 해야 하나요.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홍대’는 여러 음악인들과 함께 박 동문의 청춘이 깃든 동네다. “돈도 못 버는데 왜 저러고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는 어쨌든 이곳만의 생태계로 돌아가요. 관용적인 곳이고 자유로운 편이고 자유에 대한 존중을 한다는 거고요. 학생 때도 온 것까지 합치면 20년도 더 길게 됐는데, 누가 있는지 전체를 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기저기서 이제 꾸준히 음악의 아 이들이 탄생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앞선 음악가들을 쫓아가면서 뭔가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음악 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징적인 장소예요.”

프로듀서로서 인생 제2막 음악과는 계속 좋은 친구로 남고 싶어

‘단편선과 선원들’ 해체 이후 그는 음악 프로듀서로 인생 제2막을 열었다. 음악 프로듀서는 작곡을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인디음악 생태계는 좀 다르다. 가수들이 직접 곡을 만들어오기 때문이다. “싱어송라이

터나 밴드는 자신이 만든 곡을 들고 와요. 그럼 저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원형 상태의 음악을 음악적으로 더 잘 표현할 수 있게 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작업을 수행하는 겁니다. 필요하면 작곡을 더 해서 곡을 붙이기도 하고, 곡의 설득력을 위해 다른 악기를 추가하라는 의견을 주기도 하고, 편곡하기도 하고, 전반을 다 총괄하면서 결국 음반 형태 혹은 디지털 음원이 하는 형태의 가장 좋은 방향으로 잘 고장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소외된 음악을 하면서도 지지 않을 수 있었던 힘은 그의 내면에서 나왔다.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저는 실패한 음악가예요. 제가 하는 음악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설득하지 못한 거니까. 근데 별로 부정적인 건 아닌 게 사람은 대부분 다 실패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백종원이 되는 게 목표일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동네에서 맛있는 라면집을 만들어서 동네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게 목표일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박 동문은 음악인으로서는 자신의 음악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다는 생각에 아직도 음악 공부를 지속하고, 음악에 대해 고민한다. “40대에 접어들며 인기를 끄는 음악가로서 매력은 사라졌지만, 이전과는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앞으로도 음악과는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으로서 계속 잘 지내고 싶어요.” 실제로 음악에 관한 모든 일을 두루 하고 있는 박 동문은 이러한 믿음에서 시작된 여러 일들이 있기에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내고 있다.